오페라가수의 고민

(행8:4~8)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오페라가수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활동 중인 오페라가수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독일에 있고, 그리고 자신은 이태리나 폴란드 등지를 오가면서 오페라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테너 가수입니다.
그분이 가수로서의 고민을 털어 놓는데,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 고민이 뭐냐 하면 발성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발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는 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악의 길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발성입니다.
물론 그것이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로서는 가수가 아닌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래도 오페라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폴란드 국립극장의 주역 가수에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무대 위에서의 발성 때문에 날마다 고민을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대 위에서의 발성이 고민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분이 이런 말

을 해요.

오페라 하우스가 있으면, 뭐 2층이 있고 뭐 때로는 3층까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아주 아득하게 보이지요, 깜깜한 객석이 희미하게 저 멀리까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 노래를 부르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오페라 하우스 그 좌석의 맨~끝, 무대에서 제일 먼 곳까지 소리가 쫙~쫙 뻗어 나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리는 청각인데 보인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이 양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좋지요, 그거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페라 하우스라는 게, 그렇게 소리가 잘 뻗어 나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고, 객석에 앉은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은 뭐 찍소리 하나 안 내고 다~ 쥐 죽은 듯이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혼자서 주연 배우로서 노래를 할 때에 당연히 끝까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한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어떤 날은 아~무리 애를 써도 소리가 꼭 날개가 갑자기 부러진 새처럼, 바로 무대 앞에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진땀만 삐죽삐죽 나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무대 바로 앞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나아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전신에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애를 써도, 애만 쓰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공연 뒤에는 콱 죽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 뭐가 그럼 문제냐? 뭐 육체적인 이 성대를 가지고 발성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마인드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발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뭔가 잘 해보고 싶고,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될 거 같고, 잘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할 때마다 영락없이 자기의 이 목소리는, 음성은, 날개 꺾인 새가 돼서 무대 앞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음악에 빠져서, 음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과 혼연일체가 돼서 할 때는 그냥 소리가 쭉~쭉 뻗어 나가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설교하실 때 잘해 보겠다는 의욕이 들 때가 없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설교할 때, 잘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만만할 때니까 그때가.
아하! 희한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리에요.
오페라 가수가 예를 들어,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소리를 습득 한다는 겁니다.
소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소리를 자기의 소리로 만들어서 내뱉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리에요, 기쁜 소리에요.
복음 그 자체가, '음' 소리 음(音)자 아닙니까?
기쁜 소리를 습득하고 수용했으면, 그 소리를 내 소리로 내뱉어야 됩니다.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표현해내야 되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교회 안이 아니고.
예배당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입니다.
직장이고, 가정이고, 친구와 만날 때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시장이고 동네입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가 수용한 기쁨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다시 내 소리로 만들어서 내뱉어야 되는데, 발성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복음의 발성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 들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들에게서, 복음의 발성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고민을 안 해요.
예배당 안에 모여 가지고, 그 곳에서 봉사하고 직분 맡아서 열심히 산 다음에 세상에 나와 가지고는, 아~ 무도 복음의 발성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오페라 가수와 자기 소리가 무대 앞에서 뚝뚝 떨어지는 걸 고민하듯이, 내 입에서 복음의 소리가 우렁차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발성이 뭡니까?
복음의 소리가 내 입으로부터 발성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 꽂히는 거예요.
쫙~ 쫙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소리를 발성했을 때, 사마리아 온 성 구석구석까지 그 소리가 쫙~ 쫙 뻗어 가지고 성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니면, 복음을 발성 했을 때, 내가 기뻐서 전한 것이지만,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기쁨의 리액션이건, 대적하는 리액션이건, 리액션을 유발시키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서는 그것을 발성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쁨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들은 그 소리를 발성해서 내야지요, 내 목소리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우렁차게 울려 나오는 건 고사하고, 아예 새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새나오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 아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은, 불협화음 중에 이런 불협화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불협화음 같은 불협화음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불협화음이냐?
흩어졌다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은, 언감생심, 절대로 둘이서 붙어 다닐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흩어졌다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흩어졌다는 말이 뜻하는 실제 상황이 무엇입니까?
집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 된 모든 기반을 박탈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더불어, 내 자식과 더불어, 내 아내와 남편, 부모님과 더불어,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자체가 상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입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소리에요.

그런데 흩어진 자라는 말이 뜻하는 실제 상황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가라도, 도저히 이 세상이 정해놓은 복으로서는 어떤 것과도 연결시킬 수 없는 상황

이 흩어진 자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표현력이 좋은 문학가라도, 흩어진 자의 상황을 복과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흩어진 자의 삶을 복음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지요.
어떻게 흩어진 자, 세상에서 정한 복과는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기쁨의 소리,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흩어진 자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오히려 표현하자면 난민에 가까워요, 난민, 난민.
난민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기쁨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흠흠. 코웃음을 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들의 발성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복과는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의 복음의 발성이, 오~랜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굳어진 철벽같은 민족적 편견의 벽을 뚫고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취급했어요.
멀리서 사마리아인들이 오면, 귀찮아도 돌아갔습니다, 얼굴조차 마주 대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형성 되어진 인종적 편견과 이 관습의 벽을 뚫고 지나갑니다, 이 소리가.
그래서 온~ 사마리아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돼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복음 발성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내게서 지금 복음이 발성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오페라무대에서 가장 멀리 있는 2층에 맨 구석에 있는 자리까지, 내 복음 발성이 쭉~쭉 뻗어 나가지 않을까?
내 삶이라는 무대에서, 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복음 발성이 쫙~ 쫙 들어가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짐의 상황에 놓인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발성이 가능해집니다.
흩어진 상태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이 들릴 수 있게, 다른 사람의 마음 판에 진동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음의 발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에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감각 능력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듯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갖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내 것으로 갖게 해 주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지려면, 그래서 하나님 가진 맛을 실제로 느끼려면, 그 하나님 맛을 느껴야 기뻐지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 천국의 맛을 알아야 기뻐지는 것인데, 그 맛을 실제로 느끼려면 하나님만 가져야,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집도 갖고 있습니다, 밭도 갖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이 있습니다, 가족도 갖고 있어요, 아내도 갖고 남편도 갖고 있고, 자식도 갖고 있고, 부모도 갖고 있고, 내 몸도 갖고 있고, 내 마음이 갖고 있어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가꾸어야 되고, 내가 소중하게 돌봐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갖고 있고, 학벌도 갖고 있고, 내 마음이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안 가져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복음이고, 내가 마음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은 자로 여기게끔 해주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되었다는 불평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교회가 이 지상의 삶을 위한 기반이 되어 버리면서, 땅 위에서의 안정된 삶을 위한 기반이 돼 버리면서, 하나님만을 갖는 복음의 참 기능이 점점 쇠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 하시면서 교회가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지고 나니까, 십자가가 갖고 있던 본래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집도 밭도 원래 갖고 있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가 되면서, 집을 빼앗기고 밭을 빼앗기고, 가족이 다 흩어지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죽어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본래 기능이 활성화되기 좋은 조건이 되어 버린 거예요,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만 딱 갖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만 딱 가진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상해요.
마음에서 다~ 잃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만 딱 마음이 갖잖아요?
마음이 가진 게 하나님뿐인데,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게 돼버립니다.
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잃었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딱 갖잖아요? 집도 없고 밭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내가 필요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밥도, 옷도, 직장도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갖게 됐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집 갖잖아요, 그럼 더 큰집이 필요하고, 직장 갖지요? 그럼 승진이 필요하고, 돈 가지면 돈을 투자해서 더 큰돈이 필요하고, 자식을 가지면 자식의 성공이 필요하고… 아~ 이상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필요해지는데, 이상한 것은,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갖게 돼 하나님만 달랑 한 분 갖게 되는데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발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야~ 집 잃고, 밭 일고 다 잃고 나서, 그래도 그 잃은 상황에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딱 갖게 되는데, 내게 있는 게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기를 원하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너도 그런 삶 살아보지 않을래?”
하나님 한 분 갖게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필요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아하!
복음의 발성, 갖고 있습니까?

집도 내 이름의 소유가 있지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식도 있고, 부모 아내 남편 있고, 직장 그리고 지위, 직장에서의 지위, 또 내 스펙도 있고 많이 있어요.
흩어진 자가 되기 전에, 실제 흩어진 자가 되기 전에, 내 마음에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의 모습,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혔는데, 무엇을 쥘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뛸 수 있고, 내 배에 창

이 들어와서 창 자국이 있어 다 물이 빠지고 피가 빠졌는데, 내가 무엇을 의욕을 부릴 수가 있겠는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으면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실제 상황이 흩어지기 전에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만 갖는 겁니다.
하나님만 갖게 될 때에,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제일 기가 막힌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의 발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의 발성이 되는 겁니다.
복음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무대를 허락하시든지, 삶의 현장 중에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서 어떤 무대에 놓이게 되든지 간에, 정말 유명한 테너 가수가 피가로의 결혼, 푸치니의 나비부인, 막~ 열창하고 막 오페라하우스 맨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듣는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발성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의 소리가 쫙~쫙 뻗어 나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발성이 강력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유로 가득 차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흩어 보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갖는 자, 천국만을 마음에 갖고 있는 자가 복음을 발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줄 알아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관계에 대해 죽은 자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흩어진 자의 입장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갖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복음의 발성의 1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